

종합·해설

광주 중학교 육성회비 폐지 재원 어떻게

학생 1인당 20만6400원 140억 다른 예산서 충당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선심성 정책 논란도

광주시교육청이 이 달부터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해온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를 면제해줄기로 한 것(광주일보 9일자 1면)은 처음은 몰가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사실상 연간 20만6400원을 주는 셈이어서 단비로 여겨진다. 매년 학부모에게 걷어온 이 비용을 면제해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무상교육'이 광주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시 교육청이 학부모와 분담해온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 않고 자체 교육재정에서 충당키로 함에 따라 '포플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막대한 재원부담 때문에 정부도 지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지원비면제=그동안 '사친회비', '기성회비', '육성회비'로 불리다 지난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다(초·중·고교육법 제32조 1항 7호)는 징수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제31조 3항)과 상반돼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7년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운동이 거세게 일기도 했고 실제 반환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패소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살림에 필

요한 경비다. 교원 연구비나 회계 직원, 일용직 인건비, 교재구입, 학교비품 구입 등이 주요 용처다. 교육청이 70% 가량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들이 납부했다.

◇복지확충·재정 운용의 한계=학교운영지원비 수혜 대상은 광주시내 전체 86개 중학교 재학생 6만8000명이다. 학생 1인당 20만6400원 꼴이다. 기존 학교에 지원해오던 운영지원비 1260억여원에 학부모들이 부담해온 140억원을 보태 연간 학교에 교부하는 지원액은 총 1400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북성중학교(32개 학급)는 7754만원, 중급(20여개 학급)인 경우 4500여만원이 지원된다.

교육청은 이 재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마련했다고 한다. 사실상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를 위한 예산 14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타 예산을 줄인 셈이다.

실제 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짜면서 화장실, 창문, 교실 등 각종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를 올해 89억원으로 지난해(250억원) 보다 3분의 2 가량 줄였고, 학교시설과 시설 중·개축 사업에서 693억원을 지난해 보다 줄였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 살림을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시교육청의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광주시가 주는 자치단체 이전수

입이 전체예산(1조5492억원)의 85.9%를 차지한다. 그만큼 학교운영비 면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학부모 환영포플리즘 논란도=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도 학부모들에게 떠넘겨온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이 면제한 것은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환영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정부나 회사에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해온 탓에 사실상 도시자영업자나 농촌, 서민들만 이 비용을 납부하는 등 폐해가 많았다"며 학교운영지원비 면제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포플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작용이 두드러지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을 끌어올려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이나 현안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복지정책을 펴려면 기본적으로 세원이 확보되는 등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무리하게 예산을 쥐어짜내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포플리즘이다"며 "복지지면을 앞세우다 보면 재정난을 가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차별적인 지원보다 학교 운영지원비를 낼 수 없는 농촌지역이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나서는 등 점진적인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통 큰 합의' 끌어낼까

오늘 광역행정협의회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등 일부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통 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0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시·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를 갖는다.

광주시는 이번 협의회에 무안공항 활성화와 과학벨트 유치 등 13개 안건, 전남도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등 11건을 제안했다. 이들 24개 안건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양 시·도의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놓은 상태다. 그러나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지 관심거리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민에게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GS건설 '첨단자이 2차' 아파트의 분양 계약 접수 마감일인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델하우스에는 계약을 위해 300m가 넘는 줄이 서는 등 장사진을 이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 봄 기지개 올 첫 분양 '첨단자이 2차' 10대 1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올 첫 분양에 나선 GS건설의 '첨단자이 2차' 아파트가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9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2단계 인근에 건설 중인 '첨단자이 2차' 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

난 4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는 6일동안 3만여명이 다녀갔다. 이날 오후 접수 마감에 임박하자 모델하우스에는 10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300m가 넘는 줄이 서는 등 장사진이 연출됐다. 이들은 분양 계약 상담을 위해 3~4시간 가량 기다려야 했다. 이날 분양계약 접수를 마친 GS건설은 1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오는 14~16일 사흘간 계약을

받는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에 브랜드 아파트의 공급이 없었던데다 34평형대의 실속 평형, 전세난 등 타이밍이 잘 맞아 인기를 끈 것 같다"고 말했다.

첨단자이 2차는 지하 2층~지상 24층 5개동, 전용면적 84㎡ A타입(34평) 468가구와 B타입(35평) 78가구 등 총소형 546가구로 구성됐다. /박영국기자 jwpark@kwangju.co.kr

KTX 송정~목포 구간 '무늬만 고속철'

고속철 신설 않고 기존선 활용 시속 188km

철도시설공단 용역 최종안...전남도 등 반발

호남고속철도의 광주 송정~목포(임성리)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이 고속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철도를 활용하는 안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 2010년 12월 23일자 1면)

특히 기존 선로를 개량해 시속 300km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무늬만 고속철'인데다, 무안 공항을 연결되는 노선도 '고속 신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 임성 구간 노선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속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철도만을 활용하는 안을 용역보고서의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최종 노선안은 호남고속철도 4개 대안노선 중 '나주역을 경유하고 함

평에서 무안공항으로 지선으로 연결되는 노선(76.1km·9700억원)'으로, 소요시간은 19분이다.

이 안은 지난해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노선평가선정위원회를 열고 종합평가위원 20명 중 17명이 참여해 '교통·사업성·정책·환경측면'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된 3차례의 평가 결과에서 종합한점수 0.4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노선이다.

하지만 고속철을 신설하는 게 아닌 기존선로(59.5km)를 개량, 활용하는 것으로 평균 시속이 188km에 불과하고 최고 속도도 시속 230km에 그쳐 사실상 고속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뒤 기획재정부 및 전남도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TX 광주~목포기존노선 활용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도 최근 전남도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최종노선 방침을 전남도에 전달하는 등 사실상 최종안 확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노선안은 전남도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및 무안기업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감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선 건설'을 건의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국토부 입장이 확정되

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선인 만큼 전남도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노선안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토해양부가 고시해 최종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전까지는 이같은 노선결정 과정을 모두 마무리 짓고 광주~목포 구간 고속철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hinshu University (광신대학교) celebrating its 57th anniversary (1954-2011). It lists the university's name in English and Korean,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missions: 입학문의 (062) 605-1114 and 대학원 (062) 605-1115.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기스타)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he text '세계보청기' (World Hearing Aid). It includes the slogan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The stage of the century is the world!)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Korea: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계보청기, www.segistar.co.kr.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GMP, ISO) and a list of regional distributors for Segistar hearing aids across different parts of South Korea,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other provinces.